

데스크 시각



홍 행 기
편집부국장·정치부장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될 판이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전북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립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광주공항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면 갈 거리를 두고 마주 서게 될 두 공항은 일정 부분 고객 이 겹치고, 비행기 노선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공항의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물론가지다.

지난 18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가 이달 안에 결정된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이전엔 "특정 사안

무안공항을 '반쪽 공항'으로 만들 참인가

에 대한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지난해 10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이용호(전북)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립 공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새만금 신공항 변수 등장

사실 호남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광주·전남이 차마 드러내진 못해 왔지만 새만금이 광주전남 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젠부터 죽이 어져 왔다. 지난 2006년 4월 광주일보에는 <J프로젝트, 새만금 '암초'>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전북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를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J프로젝트처럼 간척지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지를 겨냥한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데다, 사업 시기도 서로 겹치는 등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3년 전 기사지만, 요즘 광주 전남 지역 분위기는 당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2008년 11월 광주일보에는 '전북 군산공항을 확대, 국제공항으로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개항 1년차인 무안공항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공항뿐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에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남 광양항 역시 지리적 위치상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의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다. 또 4년마다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시장·지사들로서는 '어떻게든 잘살아 보자'는 지역민의 염원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지역이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정부가 '허술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4시편의점 간출점 거리에도 신경을 쓰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항공 수요도 감안하지 않은 채 호남이라는 한 권역에 두 개의 국제공항

을 설립하려 드는 것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무신경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항공 수요 감안 정책 마련을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 역시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다. 그러한 지역민들의 열망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정책당국이라면, 전 국토 그리고 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지역 발전에 목마른 지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다. <J프로젝트, 새만금 '암초'>라는 제목의 기사는 "(중략)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로 끝을 맺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이 있다. 엄청난 세금과 지역민의 염원을 쏟아 부은 무안공항과 새만금 공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닌 '무늬만 공항'으로 전락하기 전에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dplane@

기고



신 정 훈
전 국회의원

한전공대의 입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역민들의 입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전공대가 갖고 있는 의미와 파급효과를 생각해볼 때 연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보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후보지 선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한전공대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우려일까?

참여정부 당시 광주·전남이 함께 만들어 낸 공동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듯이, 제대로 된 한전공대와 입지 선정만이 미래의 먹거리

한전공대 설립의 목적만 생각하자

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전공대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대학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너지 신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라는 점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전남본부장으로서 한전공대 설립을 처음 제안했을 때만해도 '기존 전남대 공대나 광주과기원에 에너지학과를 신설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반론이 대두수였다. 그럼에도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밸리의 성공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선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대학이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전공대는 한전과 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이 어우러진 산학연 클러스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정책은 처음부터 한전 등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그리고 연구소와 대학이 집적된 소위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를 밑그림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세계적인 IT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적 수준의 IT기술과 인재를 양성하는 스탠퍼드대학이 있었던 것처럼, 한전공대는 한전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 밸리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최적의 상생 모델인 공동 혁신도시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유지하고, 빛가람 혁신도시가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공동 혁신도시라는 상생 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상생 모델의 성과가 혁신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소위 '효천 드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광주 남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약 광주와 전남이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 몇 개를 유치하는데 급급해 각각의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면 현재와 같은 혁신도시의 성공은 물론이고 광주 남부권의 동반 성장이나 에너지 밸리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이 단순히 광주·전남 어느 지역에 또 하나의 대학을 유치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한전과 기업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동시에 공동 혁신도시라는 상생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역이 세계적 에너지 산업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공대의 설립이 혁신도시 시즌2의 출발점이 되고, 동시에 산학연 클러스터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한전공대의 설립 목적만 생각하자.

은펜칼럼

'광주다운' 공동 주택과 '광주스러운' 방음벽



박 홍 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지난 8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만의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다운 공동 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한다.

광주시는 공동 주택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울, 세종 등 선진 공동 주택 디자인을 갖춘 지역을 사례 조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건물 배치, 외벽 디자인, 발코니 형태, 특화된 부대시설 등에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시킨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주변 지역과 기존 도시 구조 특성을 비롯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대지 형상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층수와 규모는 무등산권과 영산강변, 광주천 주변 경관 자원·지형과의 조화를 이

루게 한다.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를 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이 되게 한다. 피난·방화 구조와 범죄 예방이 가능한 안전 설계를 한다. 무장애 설계를 한다." 종문은 모두 함당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각론이 격정이다. 도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보고, 디테일을 세심히 다루고, 우선 순위 결정의 지혜가 절실하다.

필자는 여기에 염려되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방음벽을 제거하라. 공동 주택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르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다. 단지 내 소음과 주택 내부 소음에 대한 기준이다. 그런데 유독 광주만 단지 내 소음 기준을 '법대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방음벽 공화국이다. 방음벽은 단지 내 '소음 공해'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다수 시민들이 겪게 되는 더욱더 큰 '시각 공해'가 되고, 도시 흉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서울이나 세종에선 방음벽 보기가 힘들다. 왜일까? 그곳 행정이 직무 유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주가 작은 규정에 매몰되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들여다 보고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방음벽을 재고하고, 도시

경관을 회복하자. 공동 주택 단지 내 소음보다는 주택 내부 소음 대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하는 공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층수 제한을 신중히 하라. 높은 건물은 주요 경관을 보는데 장애물이다. 도심에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관 장애물은 '층'수가 아니라 '동'수다. 39층 공동 주택은 경관에 방해가 없고, 40층은 방해가 되는가? 39층짜리 2개 동 보다는 78층짜리 1동의 건물이 지상의 보행자들에게 훨씬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 바람길, 일조, 채광에도 유리하다.

시공비는 더 든다. 당연히 안전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의 아주 특별한 경관 지역(지구)을 제외하고는 층수를 높이고, 동수를 줄이고, 건폐율은 적절히 축소되어야 한다. 타 도시에선 이런 추세다. 왜 광주는 층수에 매몰되어 있는가. 문제는 층수가 아니라, 장벽을 형성하는 건물 폭과 동수란 것을 간과하지 말자.

셋째,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공유하라. 보행 동선의 연속성을 해치는 주범은 공동 주택의 담장이다. 도심 주거지와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들이 재건축과 재개발되면서 그들만의 성을 쌓는다. 기존 지형과 가로 패턴을 무시되고 평지화 된

다. 그 결과 인접 가로나 대지엔 옹벽이나 절벽이 형성되고, 이웃 주거지와는 단절된다. 보행 동선은 끊긴다.

가로변 담장을 최소화하고 개방 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많이 만들자. 가능한 기존 가로 패턴은 유지하여 보행의 연속성도 확보하자. 이를 위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겉고 싶은 도시'가 된다. 겉고 싶은 도시는 결국 '살고 싶은 도시'의 기본이다.

문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타 지역에서 '광주답다'고 말할 때는 광주에 걸맞거나 긍정적 평가를 할 때 쓰곤 한다. 그러나 비아냥거릴 때는 '광주스럽다'고 말하는 소릴 들었다. 씁쓸한 감정이 교차되는 말이다. 공동 주택 단지에서 과도한 방음벽 설치나, 획일적인 층수 제한, 행정의 경직성은 부정적 어감의 '광주스런 공동 주택'을 만들게 된다.

광주가 '광주답게' 민주적이고, 선도적이고, 다수의 인권이 보호받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면, 각각의 분야에서 나로 인해서는 '광주스럽다'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유연함이, 탁월한 사유가, 행동하는 양심이 나에게는 있을 거 기원해 본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저비용 고효율' 평화 축제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고 경기장과 선수촌 건립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이 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체육 행사이자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오는 7월 12일 개막하는 수영선수권대회는 경영·다이빙·수구 등 6개 종목에 걸쳐 17일간 광주와 여수에서 펼쳐진다. 이어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8월 5일부터 1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 규모가 200여 개국 1만5000명에 이르는 만큼 예상되는 파급 효과도 크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추산한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전국 2조4000억 원, 광주 1조4000억 원이고 부가 가치 효과도 전국 1조 원, 광주 6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

된다. 또 대회 기간 전 세계 수억 명이 TV를 통해 '광주의 수영 축제'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열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자원 봉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들의 후원 유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는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문화 콘텐츠와 전남의 자연 경관을 연계한 행사와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4년 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낸 지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 석면 철거 공사 감독 철저히 해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방학 동안 모두 107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 새 학기 전에 교실·교무실·과학실·화장실 등 학생과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석면 재료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26개 학교, 그리고 전남에서는 81개 학교에서 철거 공사가 추진된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입자 크기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은데 소량이나 단기 노출에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진행증, 폐암, 악성종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에 의해 학교 현장 곳곳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시작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3년간 드러난 부실공사로 학생들이 석면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석면은 해체·제거 공사가 부실할 경우 철거 공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하

다고 한다. 공사 과정은 물론 이후 정리 작업까지 완벽하지 않다면 '공기 중에 석면가루가 떠다녀 공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학생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겨울방학 중 석면 교체나 철거가 진행 중인 학교에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은 올 들어 외부전문가·학부모 등으로 석면 철거 공사 모니터링을 꾸려 현장을 상시 검사하도록 했다고 한다.

양 교육청은 이들과 함께 석면 해체 및 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감리 철저히 이행 실태 등 석면 교체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 완료 후 모니터링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잔재물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당나라 말기 시인 십이중이 지은 '군자행'(君子行)이라는 제목의 한시(漢詩)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군자의 올바른 행동이나 몸가짐을 표현한 시다. 이 시는 '군자방미연(君子防未然)' 불치험의간(不慮難豫聞)'으로 시작된다. 군자는 미연에 방지해 혐의 받을 처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있다. '괴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문구다. 오이밭에서는 신

군자행(君子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문화재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해도 커지고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의 행동은 더더욱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

각된다. 반면 손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공직자나 정책

결정의 영향력 있는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 모든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수사로 시비를 가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해년 새해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행동과 처신에 신중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자'가 되었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행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